

## ■ 국내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직 사업체 노동력 현황 ■

유은영(KOCCA 통계정보팀 주임연구원)

고용직업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특수목적분류로 구인, 구직 등 취업알선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를 작성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콘텐츠산업에 해당되는 고용직업분류상의 직종으로는 관리자(01) 중 문화·예술·디자인·영상 관련 관리자(014)와 문화·예술·방송관련직(08)<sup>1)</sup> 전체를 꼽을 수 있다. 콘텐츠산업 관련 직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들에게는 공신력 있는 분류인 고용직업분류상의 콘텐츠산업 관련 직종을 영위하는 사업체들의 노동력 현황 자료가 큰 도움일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용직업분류상 콘텐츠산업 관련 직종을 영위하는 사업체들의 구인인원, 채용인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등을 살펴봄으로써 노동력 추이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2013년 상반기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직종 사업체들의 구인인원은 11,540명, 채용인원은 9,00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6.7% 감소,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이후 경기 및 고용상황의 회복세가 반영되어 2011년부터는 구인 및 채용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하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구인인원은 소폭 감소했고 채용인원만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높이 차이로 인한 인력수급 불일치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였으나, 2013년 상반기에는 채용인원과 구인인원이 비슷한 감소폭을 보였다.

<표1>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직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2011년~2013년 상반기)

(단위 : 명, %)

구분	2011년 상반기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구인인원	10,517	10,747	12,364	10,441	11,540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8.2)	(5.9)	(17.6)	(-2.8)	(-6.7)
채용인원	7,982	8,196	9,677	8,633	9,00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6.4)	(8.3)	(21.2)	(5.3)	(-7.0)

\*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구인인원 : 조사기간 중에 대외적인 구인활동을 한 인원으로 동 기간 내에 채용합격자가 최종확정 된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 모집공고시에 공표한 모집인원을 구인인원으로 산정

\* 채용인원 : 구인인원 중 조사기준 기간내에 채용이 확정되거나 채용된 인원

※ 출처: 고용노동부(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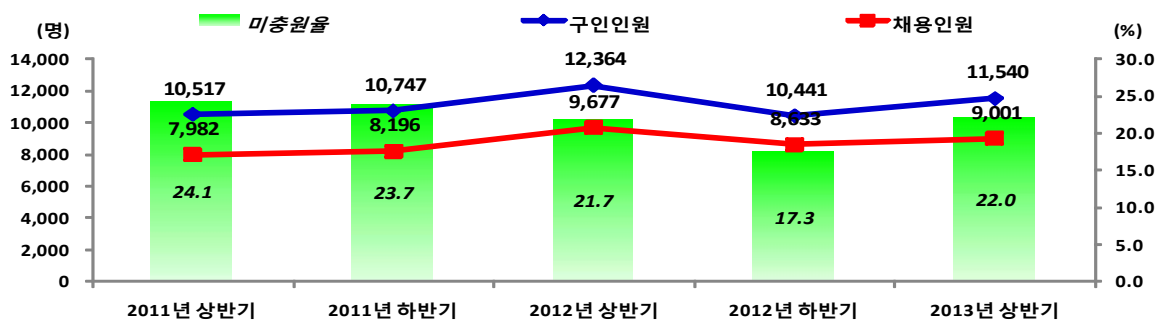
1)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08)에는 작가 및 출판 전문가(081),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082), 기자(083),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084), 디자이너(085),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086),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기술 종사자(087),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088)가 포함됨

2013년 상반기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직종 사업체들의 미충원인원은 2,539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충원율은 22.0%로 전년동기대비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미충원인원이 6.0% 증가했는데 이는 구인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충원되지 못한 인력이 소폭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채용인원 증가율이 더 커서 미충원율은 오히려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하반기에는 사업체에서 적극적인 구인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미충원인원이 1,809명으로 적게 나타나 전년동기대비 29.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직 미충원인원 및 미충원율(2011년~2013년 상반기)  
(단위 : 명, %, %p)

구분	2011년 상반기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미충원인원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535 (32.2)	2,551 (-1.2)	2,688 (6.0)	1,809 (-29.1)	2,539 (-5.5)
미충원율 (전년동기대비 증감)	24.1 (7.4)	23.7 (-1.7)	21.7 (-2.4)	17.3 (-6.4)	22.0 (0.3)

<그림1>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직 구인, 채용 및 미충원인원 추이(2011년~2013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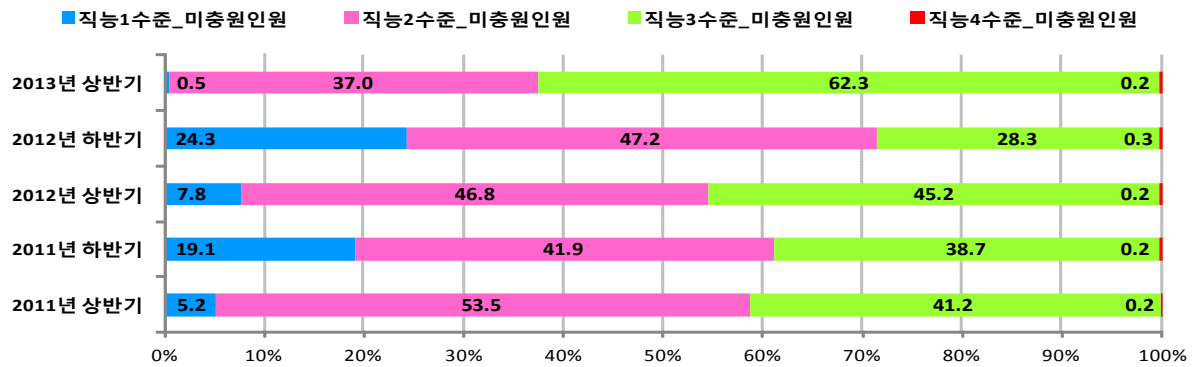


- \*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 구인인원 : 조사기간 중에 대외적인 구인활동을 한 인원으로 동 기간 내에 채용합격자가 최종확정 된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 모집공고시에 공표한 모집인원을 구인인원으로 산정
- \* 채용인원 : 구인인원 중 조사기준 기간내에 채용이 확정되거나 채용된 인원
- \* 미충원인원 = 구인인원 - 채용인원      \* 미충원율 = [(구인인원 - 채용인원) / 구인인원] x 100
- ※ 출처: 고용노동부(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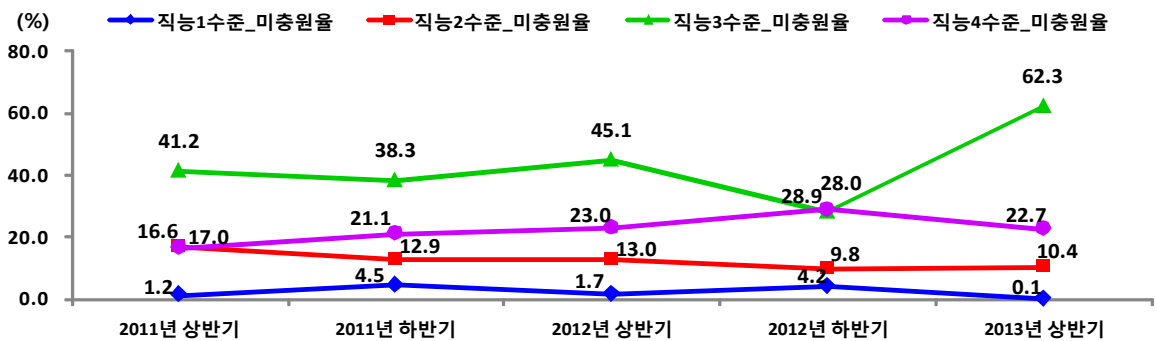
2013년 상반기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직종 사업체들의 직능수준별 미충원인원의 비중은 1수준 0.5%, 2수준 37.0%, 3수준 62.3%, 4수준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3수준의 미충원인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거나 대졸자급의 인력을 충원하기를 원하지만, 구직자들의 수요가 많지 않아 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상반기까지는 2수준의 미충원인원 비중이 3수준 보다 높게 나타나 사업체에서 적은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대졸업자(3년제 포함)급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충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하반기와 2012년 하반기에는 1수준의 미충원인원 비중이 각각 19.1%, 24.3%로 꽤 높게 나타나 사업체에서 경력, 학력 등과 무관하게 구인활동을 했으나, 충분한 인력이 채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충원율은 2011년부터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3수준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4수준, 2수준, 1수준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상반기에는 3수준의 미충원율이 62.3%로 매우 높았으며, 2012년 하반기에는 3수준과 4수준의 미충원율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2011년 상반기에는 2수준과 3수준의 미충원율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직 직능수준별 미충원인원 비중(2011년~2013년 상반기)



<그림3>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직 직능수준별 미충원율 추이(2011년~2013년 상반기)



\*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미충원인원 = 구인인원 - 채용인원      \* 미충원율 = [(구인인원 - 채용인원) / 구인인원] x 100  
 \* 직능1수준 : 무경력자, 학력무관, 자격증무관  
 \* 직능2수준 : 2년 미만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능사, 산업기사 수준 또는 전문대 및 초대졸 이하  
 \* 직능3수준 : 2년~10년 미만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사 수준 또는 대졸/석사 수준  
 \* 직능4수준 : 10년 이상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수준 또는 박사 수준  
 ※ 출처: 고용노동부(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재구성

2013년 상반기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직종 사업체들의 현원은 163,033명으로 전년동기(163,017명)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부족인원은 7,697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사업체가 정상적인 경영 및 생산활동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력이 전년동기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부족률은 4.5%로 전년동기대비 0.4%p 감소해 인력부족현상은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채용계획인원은 7,583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6% 감소해 고용상황은 다소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현원이 10.6% 증가했음에도 부족인원이 41.4%의 큰 증가율을 보여 인력부족률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채용계획인원도 34.5% 증가해 어느 정도 고용증가는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표3>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직 현원,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2011년~2013년 상반기)

(단위 : 명, %, %p)

구분	2011년 상반기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현원	147,383	147,274	163,017	164,211	163,033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0)	(-3.8)	(10.6)	(11.5)	(0.01)
부족인원	6,003	6,376	8,491	7,409	7,697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0.4)	(-8.0)	(41.4)	(16.2)	(-9.4)
인력부족률	3.9	4.1	5.0	4.3	4.5
(전년동기대비 증감)	(-0.1)	(-0.2)	(1.0)	(0.2)	(-0.4)
채용계획인원	6,376	6,599	8,574	7,030	7,583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8.0)	(-5.2)	(34.5)	(6.5)	(-11.6)

- \*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 현원 : 조사기준일 현재 사업체에 근로하고 있는 전체종사자 수(상용, 임시·일용,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포함)
- \* 부족인원 : 조사기준일 현재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기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
- \* 채용계획인원 : 조사기준일부터 6개월 사이에 채용할 계획이 있는 인원
- \* 인력부족률 : 현원에 부족인원을 합한 전체인원 중 부족인원 비율, [부족인원/(부족인원+현원)×100]
- ※ 출처: 고용노동부(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재구성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직종 사업체들의 노동력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2년 하반기까지는 구인인원 보다 채용인원의 증가율이 더 크고 미충원율도 감소세를 보여 인력수급 미스매치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였으나, 2013년 상반기에 들어서면서 미충원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계획인원 또한 2012년에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3년 상반기에 들어서면서 전년동기대비 11.6% 감소하여 현원이 유사한 수준인 것과 대비를 이루며 고용둔화양상을 보였다.

본고에서 살펴본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직종 사업체들의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등의 노동력 현황 통계를 통해 이 분야 사업체들의 구인동향 및 고용상황을 파악해볼 수 있었고, 이는 이 분야 구직자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통계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용근로자가 적은 영세한 사업체가 많은 콘텐츠산업 직종을 살펴보기에는 분명 한계점이 있다. 사업체 노동력 통계는 전 산업, 전 직종을 다루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로 한정했을 것이라 생각되며, 5인 이하 사업체 대상 조사는 어느 조사든 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성장산업인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정확하고 다양한 통계가 생산될 필요가 있으며, 조사대상도 1인 창조기업 등 소규모 사업체들을 포함하고 조사범위도 산업특성을 반영한 체계화된 분류를 기반으로 할 필요할 것이다.